

# “농·축특산물 안정공급으로 제값 받는다”

## 포천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간보고회

포천시는 지난 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포천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운국 포천시청장과 홍성훈 시의회장, 농·축협 및 농업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수집·판매하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천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12월 26일 관내 초·중·고 50개 학교와 9개 생산자단체 간에 체결된 ‘포천학 학교급식용 공급협약’ 등 농축산물기반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소개한 뒤, 이번 연구용역도 포천시 농축특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수입농산물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



포천시는 지난 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포천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황의식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했으며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1월말 제출되는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

될 예정이다.

포천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전남 광주 간 고속버스노선 개통



포천과 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이 이날 24일 개통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9월, 당시 포천시의 경기, 강원, 인천시를 잇는 6개 노선 개통버스 제막식 모습.

### 설 앞둔 24일부터 운행 개시

오는 설을 앞두고 포천에서 호남 지역을 오가기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포천시는 포천(신음동)에서 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

이 24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설 연휴 이전에 광주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했다.

포천~광주광역시 노선은 하루 두차례씩 운행되는데 포천에서 광주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3시,

광주에서 포천으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각각 버스가 출발한다. 차종은 28인승 우등고속버스로 운행 소요시간은 4시간 30분, 요금은 2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노선을 향후 하루 4회로 증편할 계획이며 또 금년 상반기 중에 대구노선을 추가로 개설해 원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천시 일동·영북면에서 출발하고 있는 대전, 청주시 노선을 포함해 전국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갖춰지게 돼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포천시는 지난 2004년 9월에도 강원도 속초, 강릉, 동해, 춘천, 청평, 가평 및 인천, 안양, 수원, 안산 등 10개 도시를 운행하는 6개 광역 고속버스노선을 개통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소비자 기호에 따른 맞춤형 농업 실천



포천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4일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포천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영농 기술 및 정보습득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벼농사, 콩, 오이, 고추, 포도 등 총 13개 과정

26회 강의에 연인원 2천500여명의 지역 농업인들이 참여한다.

강의내용 중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 등 소비자의 농산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삼, 사과, 한우 등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학습조직반과 행정인·통장반 교육이 잇달아 열려 농업인의 일체감 조성과 당면 현안과제 해결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지난해의 영농현장을 돌아보고 새로운 핵심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알찬 내용의 강의들이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작년에 새롭게 문을 연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의 집’ 등 14개소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이 실시되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각종 전산장비도 적극 활용된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이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농업인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 농업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새해 영농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電, 복지할인요금제도 확대 시행 어려운 계층 20%까지 할인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 구랍 28일부터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산업용 ‘갑’)과 서민층(주택용 200kWh 이하), 농사용 요금은 동결해 전체적인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재정이 열악한 교육용요금에 공급원가 수준으로 16.2% 대폭 인하했으며, 2004년에 도입한 복지할인요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의 전기요금을 각각 15%, 20% 할인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던 영유아보육시설 및 과학관은 교육용전력으로 일부 물류시설 및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용전력으로 종별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계약종별간의 요금격차가 완화되고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나 국민번호 1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1년분 자동차세 1월중 납부하면 혜택

포천시가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포천시청 세정과에서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직접 시중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할인된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화로 선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월 25일 이전에 신청해야 우편으로 신고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삼성카드 제외)로 자동차세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포천시는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양도할 경우, 자동차 소유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정결한 시 이미지 개선 음식문화개선사업 연중 추진

포천시가 음식물 과소비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포천시는 관내 음식점에 대해 ▶간소하고 알뜰한 상차림 제공 ▶100원 환불운동 ▶반찬종류의 대·중·소 구분제공 ▶위생시설 청결유지 ▶종사원의 깨끗한 이미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타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창성산업

# PB, 합판, MDF, 비닐접착(오바리) 전문



대표 조봉구

일반가구와 건축자재에 필요한 양질의 PB, 합판, MDF, 비닐접착을 독특한 노하우와 풍부한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창성산업(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81-16 대표 조봉구).

창성산업은 조성선 전 대표가 10여년 전 창업해 현재 아들인 조봉구 대표가 부친의 신뢰와 노하우, 자신의 젊음과 패기를 접목시키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분주한 입장이다.

국내 가구시장의 위기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예전에 비해 가구 생산기술의 향상과 가구공장들의 자동화된 생산라인이 많은 양의 가구를 생산하는 것과 현대인의 감각과 건축의 발달로 인해 신축하는 주택과 건물 등에 발발이장의 사용도가 많아지는 것도 현재 가구시장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국내 가구업체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가구업체의 어려운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무언가 특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타 업체들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창성산업은 현재 약 50여 개의 협력업체들과 원활한 제품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다짐 아래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직원들과 수시로 열린 대화를 통해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서로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으며 쾌적한 작업공간 확보로 작업의 능률과 제품의 질을 한 단계 업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신용”을 담보로 살아온 조 전 대표의 경영마인드가 그나마 어려운 가

## 성실과 신용을 담보로 신뢰받는 업체 운영

##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제품생산에 주력

조 전 대표는 처음 목재소를 시작으로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지금의 창성산업을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지금은 주위에서 목재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30여년 전 당시에는 국내에 목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으로 업체들 대부분이 호황을 누렸으며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목재소 또한 업계에서 인정받는 업체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꾸준한 성장을 해온 목재소는 조 전 대표에게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조 전 대표는 10여년 전에 국내 가구시장 성황에 맞게 가구 임 가공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 온 것이다.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성산업을 성장 시켜온 조 전 대표는 지금도 평범한 경영인을 좌우명으로 삼고 협력업체들과 우의를 다지며 점차 사장되어가고 있는 가구시장을 예견처럼

구업체에서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초대총무, 소흘읍 생활안전협의회 총무, 가산면 지역발전 후원의총무로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조 봉구 현 대표는 “부친의 업체를 대물림 받아 창성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실과 신용”을 담보로 업체를 운영해온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고객들과 협력업체들로부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랜 시간동안 부친의 곁에서 사업감각을 배워온 것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젊음과 패기, 열정으로 창성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일반가구와 건축자재에 필요한 양질의 PB, 합판, MDF, 비닐접착을 독특한 노하우와 풍부한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창성산업.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감전사고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이 원인으로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된 자동전격방지기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용접기의 출력축 2차 무부하 전압 77.7V가 인체에 흘렀기 때문이고, 둘째 교류아크용접기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으로 교류아크용접기 용접봉 홀더의 절연부가 파손되어 충전부 노출 상태로 사용 중 노출충전부에 신체가 접촉됐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기에는 위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용접기 용접봉 홀더의 출력축 무부하 전압 : 25V이하)해야 하며,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 방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게 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4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판매

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

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지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

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4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4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 때에 주고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